

미륵여래께서 사람 몸을 입고 현신하셨다

비록 사람의 몸은 입었으나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시었으니 이것이 바로 감로(甘露)인 것이다. 이 감로는 살아 움직이는데 사람들의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죽지 않고 성불(成佛)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인류 역사 이래 보지 못했으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주인이신 미륵부처님은 돌부처나 쇠부처 형상이 아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현신하신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하시나 사실은 감로를 가지고 사람들 각각의 업장을 감로의 빛으로 소멸시켜 지혜를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며 희망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위대한 능력의 주인공이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주에 꼭 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망의 마귀(死魔)를 감로의 빛으로 소멸시키며 온 우주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신다. 우주의 주인이신 미륵부처님께선 분신(分身)의 능력이 있으시므로 동시에 각각의 장소에 각각 다른 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적도 수없이 많다.

포대화상의 열반송을 보도록 하자.

미륵 진미륵(彌勒 眞彌勒)
분신 천백억(分身 千百億)
시시 시시인(時時 示時人)
시인 자불식(時人 自不識)
미륵불 진짜 미륵불은
분신을 천백 억으로 하여서
때때로 사람에게 내보이지만
사람이 어리석어서 알아보지 못하네

우리나라 예언서인 격암유록(格庵遺錄) 말운론(末運論)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인불인천신강(似人非人天神降) :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신께서 내려오신 것이다.

또한 불경에는 미륵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대반열반경 21품 광명변조고귀덕왕보살품 3
如來常有漏中故 有漏即是二十五
여래상행유루중고 유루즉사이십유
是故辯明凡夫之人言佛有漏 諸佛如來眞實無漏
시고성문범부지인연불유루 제불여래진실무루
부처님께서는 항상 유루(有漏) 가운데

행함임이 유루란 곧 25유요 그러므로 성문과 범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은 유루」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진실로 무루니라』 이 말씀의 뜻은 미륵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법을 설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지를 드시고 잠을 주무시고 각 지방과 해외제단을 순회 범문 시에 자동차와 비행기를 이용하시니, 사람이 아니냐고 하지만 겉모습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조그금도 빈틈이 없으신 완벽한 부처님이라고 알려주는 장면이다.

사실 초창기에는 제단에서 범문을 퍼실 때 불덩어리로 변하여 설법을 하시니 초발심을 낸 신자들께서 오셔서 보시고 놀라는 일들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는 미륵부처님의 거의 두 배나 되는 불가동이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니 이것이 32상의 하나로 말씀하신 <15. 몸에서 솟는 밝은 빛이 한 길(사람의 키)임>이 확인되고 있으니 모든 경전에서 통일되고 일관되게 우주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빛이 바로 석존이 말하는 감로(甘露)인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이기적인 영은 영생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나'라는 의식이 아니요, 바로 희생의 영, 양심의 영, 하나님의 영인 것이다. 양심의 영이 좌정해야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영은 영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귀의 영인 까닭이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영,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영,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영, 이러한 영은 멸망의 영인 마귀의 영이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항상 희생적으로 봉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척추 비틀기~
하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배를 빠르게 잡아준다.
다. 근육의 개폐력을 높여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므로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배설

이 잘되어 간이 편안해진다. 상체 전체를 비틀어 엉덩이와 다리의 탄력을 강화한다.

동작 ① : 빠르게 누워서 한쪽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린다.
2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 ② :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올렸던 다리를 반대쪽 바닥으로 내린다.
2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 ③ : 옆드려 머리 뒤에 양손 깍지를 끼고 다리는 골반 너비로 발등을 바닥에 댄다.
2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동작 ④ : 숨을 내쉬며 한쪽 어깨를 들어 상체를 비틀어 양어깨를 바닥으로 내린다.
2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주의: 골반과 다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중입의 때를 모르고 말입하는 자는 죽으리니

賽三五 새삼오

萬民之衆奉命天語 만민중봉명천어
弓乙之人諱誨教化 궁을지인순순교화
弱者爲難戰勝 약자위수전승
爲堅却者劫萬民聽示
위건각자견민청시
西京東來 서기동래
救世眞人 天生化柿末世聖君
구세진인 천생화시말세성군
天人出豫民救地 천인출예민구지
其時閉目忽聞 기시폐목홀개
龍耳口亞聽取吹歌 용이구아청취취가
半身不隨長伸脚 반신불수장신각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은 심승 정도령이 거듭거듭 일러서 진철하게 가르쳐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비록 '악한 자(양심)'라 하더라도 '강한 자(나라는 마귀)'를 물리쳐서 싸움에 이기게 하여 탈검중생(脫劫重生)케 하시는 것을 세계 만민들이 듣고 보게 하시니라.

중천운의 인생추수 기운을 좇아 동방 땅 대한민국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구세진인은 하늘이 내신 감(감)나 무요 말세의 성군이니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 인류를 구원하도록 예정된 땅이니라. 그때 장님이 홀연히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병어리가 노래하며 반신불수(半身不隨)의 사람이 다리를 펴게 되리라. [* 용이(龍耳)는 귀먹을 농(聾)의 파자, 구아(口亞)는 병어리 아(啞)자의 파자.]

廣野湧出沙漠流泉 광야용출사막류천
移山倒水海枯 이산도수해고
山焚大中小魚皆亡 산분대중소어개망
愚昧行人不正路 우매행인부정로
天釋之人兩手大舉天呼萬歲
천석지인양수대거천호만세
惡臭永無全消 악취영무전소

中動不知末動之死 중동부지말동지사
人皆心覺不老永生 인개심각불로영생
從之弓乙永無失敗 중지궁을영무실패
我國東邦萬邦之避亂之方
아국동방만방지피란지방
民見從柿天受大福 민견종시천수대복
不失時機後悔莫及矣 불실시기후회막급의

말세성군이신 구세진인을 잘 받들고 가르침대로 행하면 광야에서 샘이 솟으며 사막에서 샘물이 흐름과 같을 것이요. 구세진인을 몰라보면 산이 무너지고 물이 거꾸로 흐르며 바다가 마르는 것과 같은 천재지변이 따르고 산이 불타고 크고 작은 나라가 모두 망하는 일이 있으리라. 어리석고 사리(事理)에 어두운 사람은 바르지 않는 길을 가고, 구세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만세'를 부르리라. 그때가 되면 죄악의 구린내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리라.

중동(中動) 즉 중입(中入)의 때를 모르고 있다가 말동(末動) 즉 말입(末入)하는 자는 죽으리니, 사람들이 모두 불로 영생을 마음에 깨달아 궁을심승 정도령을 따르지만 하면 영원토록 실패하는 일이 없으리라. 우리나라 동방 땅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피난처요 감람나무 말세성군 정도령(신미생 81공)을 만나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크나큰 복(불사영생不死永生)을 받으리니 부디 그때와 기회를 놓치지 마소. 그 시기를 놓치면 후회막급하리라.

賽四一 새사일

列邦諸人緘口無言 열방제인함구무언
火龍赤蛇大陸東邦鄰隅半島
화룡적사대륙동방해우반도
天下一氣再生身 천하일기재생신
利見機打破滅魔 이견기타파멸마
人生秋收穡米端風驅飛
인생추수조미단풍구비

糟飄風之人弓乙十勝조포풍지인궁을십승
轉白之死 黃腹再生 전백지사 황복재생
三八之北出於聖人天授大命
삼팔자북출어성인천수대명
似人非人柿眞人 사인불인사진인
馬頭牛角火冠木 마두우각양화관목
海島眞人渡南來之眞主出
해도진인도남래진주출
南海島中紫霞仙境 남해도중자하선경
世人不覺矣 세인불각의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말이 없도다. 화룡적사(火龍赤蛇) 즉 병진정사에 오는 5도72공 정도령이 대륙의 동쪽 땅 끝 땅 모퉁이의 반도의 나라에 와서 하늘의 역사를 시작하느니라. 이어서 6도81공 정도령은 천하일기로 다시 몸을 나누시는데 이 분은 바라보기만 해도 마귀가 박멸소망 되느니라. 인생을 추수하러 오신 분이요 지계미조(糶)자에서 쌀 미(米)자를 바람에 날려 보내고 지계미 조(糶)를 쫓아 버림에 날려 보낸 성씨를 가진 분인데 이 분이 바로 궁을심승 정도령이니라. 혹자는 '조(糶)에서 무리 조(曹)자를 바람에 날려 보낸다.'라고 말하여 남는 것은 쌀 미(米)자라 하는데 이는 단풍(端風)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 단(端)은 처음의 끄트머리를 의미하고 마지막의 끄트머리는 예(倪)자를 쓴다. 만약 쌀 미(米)자만 남는다면 글귀가 조조예풍구비(曹曹倪風驅飛)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미단풍구비(糶米端風驅飛)는 조(糶)자에서 처음인 쌀 미(米)자를 바람

에 날려 보낸다가 되고 결국 무리 조(曹)자만 남게 되는 것이다. 무리 조(曹)자는 일자 총획으로 되어 있으며 획수가 심획(十劃)이다. 심(十)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입산(入山)하면 죽을 것이요 심승 정도령을 만나면 영생을 얻으리라. 전백(轉白)은 백(白)을 굴리면 입산(入山)이 되고 황복(黃腹)은 황(黃)자의 배 부분에 전(田)이 있으니 곧 이재전전(利在田田)의 주인공 심승 정도령을 의미한다.

삼팔선 이복에서 나온 성인(5도72공)은 하늘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분으로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감(감)나무(하나무)와 같은 진인이니라.

마두우각(馬頭牛角)은 말 머리에 소뿔이란 뜻이니 말을 의미하는 오(午)에 소뿔이 나면 우(牛)자가 되니 곧 하나님이란 뜻이 된다. 마두우각을 줄이면 두각이 된다. 두각(頭角=만인위에 뛰어난 분)을 나타낸다고 할 때 쓰는데 하나님이 출현하실 땐 빛으로 나오시므로 영광의 하나님이 된다. 양화관목(兩火冠木) 영(榮)자의 파자이다. 빛(영광榮光)의 하나님이 좌정하신 진인(삼팔자북출어성인三八之北出於聖人)이 남조선 대한민국으로 와서 15진주가 되는 구세주(6도81공 정도령)를 배출하고 구세주는 자하선경(紫霞仙境)에 거하고 계시니라.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기에서 자하선경은 구세주가 계시는 계룡백석 즉 소사(素砂)를 의미한다. 구세주(曹倪風驅飛)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미단풍구비(糶米端風驅飛)는 조(糶)자에서 처음인 쌀 미(米)자를 바람

박영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진리 |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전도 문답 [10]

질문: 승리제단에서는 이긴자를 구세주로 증거하기 위해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 솔로몬 행각(벽은 없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건축물)에 운집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예언했던 '나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이며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인용된 것임을 제대로 아시나요?

답변: 물론 잘 압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해의 서북단에 위치한 콤란 공동체는 오늘날 신앙촌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 속한 콤란 종파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기 위한 의식을 치렀는데 아첨적녀(아첨)로 목욕재계(목욕)하였습니다. '의로운 교사'로 불리워지는 콤란 종파의 지도자는 모세5경과 이사야와 그와 같은 선지자의 예언을 양피지에 기록하면서, 특히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예언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세주이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강림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동의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을 유대 땅에서 내쫓고 이스라엘의 광복을 이루어냈다면, 초대교회의 집사 스테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의인이 곧 예수님이다(사도행전 7장 37절과 52절).”라고 외쳤을 때 유대교인들의 돌팔매질에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5천 명의 군중을 먹였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게 한 모세의 기적과 비견되기에,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이야말로 참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요 6:14).”라고 했던 것입니다.

답변: 정작 예수 자신이 이실직고하기를,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메시야는 내 뒤에 오신다(요14:30).”라고 했으며, 진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광야에서 내렸던 침적녀(아첨)로 목욕재계(목욕)하였습니다. '의로운 교사'로 불리워지는 콤란 종파의 지도자는 모세5경과 이사야와 그와 같은 선지자의 예언을 양피지에 기록하면서, 특히 신명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예언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세주이었던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호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김해제단 : (055)327-2072	사천제단 : (055)855-4270	충주제단 : (010)9980-5805	大阪祭壇 : (06)6451-3914
수원제단 : (031)236-8465	대구제단 : (010)6530-7909	순천제단 : (010)3661-9025	양평제단 : (010)2945-8254	Sydney : (006)0415-727-001
안성제단 : (031)673-4635	마산제단 : (055)241-1161	정읍제단 : (010)8628-2758	橫濱祭壇 : (045)489-9343	
평택제단 : (010)7516-1591	진주제단 : (055)745-9228	군산제단 : (063)461-3491	神戸祭壇 : (078)862-9522	
부산제단 : (051)863-6307	진해제단 : (055)544-7464	대전제단 : (042)522-1560	下關祭壇 : (0832)32-1988	
영도제단 : (010)6692-7582	영천제단 : (054)333-7121	청주제단 : (010)5484-0447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